

한국 수의(獸醫) 발달사(2)



경기도 수의사회 부회장

이시영

대한수의사
학회

아직기(阿直岐)와 양마술

우리 역사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인물이 있다. 그들이 바로 아직기이다. 이는 백제사람으로서 일본에 양마(良馬)를 가지고 가서 말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다. 왕인(王仁)박사와 아직기가 그들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고구려의 혜자법사이다.

아직기는 백제사람으로서 축산이나 수의학분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그는 백제의 고여왕(古余王)과 책계왕(責稽王)시대 사람으로서 경서에도 능통할 뿐더러 양마 기술도 있었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갈 때 양마 두 마리를 가지고 가서 선사하고 궁중에서 그 말을 기르는 일을 맡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아직기가 수의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고 추론하기는 어렵겠지만 양육과 위생은 표리의 관계에 있기에 축산과 수의를 전혀

별개의 기술, 별개의 학문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만큼 양마기술이라는 것은 말에 대한 위생, 치료 방역등 오늘날의 수의 기술의 개념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마법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미루어 말의 양육과 더불어 치료기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서기 응신천황(應神天皇) 15년 8월(서기 284년)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가을 8월 6일에 백제왕은 아직기(阿直岐)를 파견하여 양마 2필을 보내왔다. 그래서 경(輕)의 판상(坂上)의 마구간(廐)에서 사양하였다. 그래서 아직기에게 사육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말을 기른 곳을 이름하여 구판(廢坂;우마야사가)이라 불렀다. 아직기는 또 경전을 잘 읽었으므로 태자 토도치랑자(道稚郎子;우지노와기이라쓰꼬)의 스승으로 하였다. 천황은 아직기에게 묻기를 '혹 너보다 훌륭한 박사가 있느냐' ? 대답하여 왕인(王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수하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천황은 상모야군(上毛野君;가미쓰게노노기미)의 할아버지인 황전별(荒田別)과 무별(巫別;가무나기와께)을 백제에 보내서 왕인을 모셔왔다. 그 아직기는 아직기사(阿直崎史;아치기노후비도)의 시조이다.

지충(知聰)과 우유(牛乳)

대륙의 수의학은 전설시대인 황제시대의 마사황을 비조로 하고 진나라 시대의 백락, 주나라의 왕량(王良)등으로 이어지는데 그 근본원리와 내용은 인의술이나 마찬가지로 음양오행설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의학에 있어서 오(吳)나라 사람 지충(知聰)이 고구려 평원왕(平原王) 3년(561년) 내외 전약서(內外典藥書)와 명당도(明堂圖)등을 가지고 고구려를 거쳐 일본으로 귀화한 것을 볼 때 한방의학자들이 공공연히 수입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지충은 의약관계뿐 아니라 일본에 우유(牛乳)음용법을 전했다는 사실로 볼 때 축산과 수의학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동시에 수의학 지식도 상당했으리라 추측된다.

우리의 옛 선조들이 우유를 마셨을까? 중국 대륙에서는 우유 이용이 서구의 착유문화권처럼 일반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문헌에 우유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유를 음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의 민족들도 중국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울러 몽골의 영향으로 오래전

부터 우유를 음용했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일본의 가축 사학자 이가다(鑄房)는 일본 사람의 우유 음용이 중국 전래의 풍습이라고 할지 모르나 당시 일본에 귀화한 조선인들 중에는 중국인을 조상으로 한 사람들이 많으며, 지충도 조선에 살고 있었던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조선에 우유 음용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하나 일본의 소 사육이 조선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조선의 우유 음용의 역사는 오래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 우왕 시절에 우유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때는 아마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지충이 고구려에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우유를 마시는 것을 전했고, 그의 후예인 화약사주(和藥使主)라는 사람도 일본에 건너가 우유 마시는 것을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 화약사주라는 사람은 중국의 오(吳)나라 사람인데 지충을 선조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효덕(孝德)천황에게 우유를 진상한 인연으로 화약사주라는 성을 하사 받기도 하였다.

혜자법사(惠慈法師)와 태지류(太子流)

고구려의 혜자(惠慈)법사가 일본에 가서 성덕(聖德)태자의 스승이 되면서 정식으로 한토(韓土)수의학이 일본에 상륙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서기 권 22에 일본의 33대 추고(推古)천황 3년(595) 5월경에 고구려의 승 혜자가 상륙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의 법흥사(法興寺)가 서기 596년에 완성되었는데 그후부터 신라에서 건너간 혜충(惠聰)과 함께 그 곳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다.

일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고려 중 혜자가 래조하여 성덕태자의 신하에 다찌바나(橋猪彌)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혜자로 부터 료마법(療馬法)을 배울 것을 명 받아 이후 대대로 그 법을 전하여 이것을 태자류(太子流)라고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글에 의하면 태자의 신하가 배운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 일본의 학자들은 성덕태자가 직접 배웠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학적인 치료술이 무속적이고 신비적인 영역에 쌓여 있다가 고구려의 지충이나 혜자가 한토 수의학을 전해 주므로 미신적 방법에서 탈피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수의학사(日本獸醫學史)에서는 일본의 수의학이 인의학보다 늦은 일본 제33대 추고천황 3년 5월 경에 도입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해가 바로 혜자 법사가 일본으로 건너간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이나 혜자법사가 일본으로 갔다는 기록 자체도 없다. 그러나 일본에까지 양마술이나 수의술을 전해줄 정도라면 우리 나라에서도 대단한 기술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되지 않은 기록들이 구전(口傳)에서 구전으로 또는 노래로 불리어져 후세에까지 전해지면서 조선시대 초기에 발간된 신편집성마의방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 책을 보면 병원가(病原歌)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즉 노래로 질병을 설명하고 있다.

삼국시대에 일본에 전수되어 일본 수의학의 창시에 영향을 주었던 고구려의 수의학은 백제와 신라에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를 볼 때 삼국시대에는 수의학이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이때는 세 가지 유형의 수의술이 별개 또는 복합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토속적인 수의술로 주로 무속적인 것이고, 둘째는 중국 대륙에서 유입된 비교적 과학적인 것과 셋째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불교의 영향 및 인도의 수의학과 불교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적 요법일 것이다. 그의 대상동물은 당연히 말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국이 서로 살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전쟁의 수단은 당연히 말이었다. 특히 고구려는 북쪽의 중국 대륙과 부단히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토속적인 수의학은 말의 질병이 사악한 귀신이나 악귀가 말의 몸에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쫓아내면 병이 낫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의지하거나 믿는 신에게 부탁하여 악귀를 쫓는 방법인데, 산천에 기도를 드리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무당에게 부탁해서 곳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들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는 무당이 곧 의사였을 것이다. 지금도 미개한 나라에서는 무당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수의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된 것은 없다. 단지 당지도 말의 발굽의 중요성은 인정된 것 같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의 근구수왕(近仇首王) 원년(375년)의 기록에 “사기(祀紀)라는 사람은 원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백제왕의 말발굽을 상하게 하므로 그 죄가 두려워 고구려로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은 사기라는 사람은 왕실의 말 관리인이었는데 말발굽을 관리하다가 잘 못해서 발굽을 못 쓰게 만들어 도망했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기록에는 말의 발굽을 깎거나 손질했다는 기록은 없다. 오늘날과 같은 편자를 장착하는 것도 조선조 시대인 성종 10년(1479년) 윤필상(尹弼商)장군이 건주(建州)의 여진족들을 정벌할 때 종전에 사용하던 칩 대신 쇠붙이를 발굽에 사용했는데 이를 대갈(代葛)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그러나 중국의 요동 지방에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편자를 사용했기에 이들 발굽에 편자를 장착하는 방법이 백제에 도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관리인이 발굽을 잘 못 손질해서 발굽을 상했다는 것이다.

최초의 수의박사(獸醫博士)라는 칭호

삼국시대의 활발한 수의학은 그후 고려로 전파되었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의학 서적인 신편집성마의방이라는 책은 1399년(정종

원년)에 간행된 것인데 신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의 서적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이는 이미 고려시대에도 수의학 서적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고려시대는 송(宋)나라나 원(元)나라의 수의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독자적인 수의학이 싹트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마정(馬政)과 목축(牧畜)을 담당하는 기구로서는 사복사(司僕寺) 전구서(典廐署) 봉차서(奉車署)등이 있는데 사복사에서는 마정에 관한 사항을, 전구서에서는 일반가축의 사양에 관한 사항을, 봉차서에는 왕실의 차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수의는 사복사에서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산마(産馬)시설로서는 국초부터 각지에 국영목장을 설치하고 의종(毅宗) 3년(1159년)에는 오늘날의 사양표준에 해당되는 축마료식(畜馬料式)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마필 사양의 과학화를 도모하였다. 말의 각 품종별로 청초가 나는 계절(靑草節)과 가을부터 겨울까지 청초가 없는 계절(黃草節)로 나누어서 1일 급여해야 할 사료양을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마산에 크게 힘을 기울였음으로 필연적으로 그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수의학적 지식과 기술보급에도 관심이 컸을 것이다. 관제에서 수의에 관한 제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기록은 없으나 수의(獸醫) 또는 수의박사(獸醫博士)라는 명칭이 고려 때부터

사용되게 되었다.

원래 박사라는 명칭은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 교수직(教授職)이라는 관명(官名)으로 사용되었는데 고려때는 국자감(國子監)이라는 중앙교육기관에 국자박사(國子), 태학박사(太學), 사문박사(四門), 산학박사(算學)를 두어 전문분야를 교수케 하였고, 조선시대에도 성균관등에 박사를 두어 교수의 임무를 수행시켰다.

고려 태조는 중앙행정기관에 학교를 세워 수과(獸科)복과(卜科)라는 병설하였는데 수과에서는 무엇을 교육시켰는지 분명하지 않다. 문종(文宗) 30년(1076년)에 비로소 수의박사라는 관직이 12목 각 과에 배치되어 수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수의라는 관직이름이며 수의교육이 실시된 최초의 명문기록이기도 하다. 충렬왕 14년(1289년) 2월에는 마축 자장별감(馬畜滋長別監)이라는 직제를 두어서 마산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 조직 속에는 수의라는 조직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고려말엽인 우왕 14년(1388년) 조준(趙浚)이 시무를 기술한가운데 “사복시(司僕寺)에 수의(獸醫) 5인과 구사(驅史) 30인을 두고 나머지는 파하라”라고 건의한 글 중에도 수의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몽골의 지배와 수의학에 미친 영향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 보다도 수의학이 더욱 발전되었을 가능성은 한족(漢族)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유목기마(遊牧騎馬) 민족인 원(元)나라의 지배를 받았기에 더 더욱 발전된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원의 세조(世祖; 쿠빌라이)는 일본 정벌을 위하여 제주도에 종마 160두를 보내서 말을 생산토록 하였으며 그 말 생산의 책임자는 원의 다루화치(達路花赤)가 담당토록 했기에 그들의 수의술이 직접 이 땅에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유목풍습까지도 이 땅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말과 관련된 몽골어 용어들이 우리의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제주마를 조랑말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작다는 ‘조롱’이라는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몽골의 어원이다. 몽골에서는 측대보(側對步) 말을 ‘조로말’이라고 한다.

제주도에서도 몽골말의 후예답게 측대보로 걷는 말들이 많다. 제주 일마라고도 하며 양반마라고도 한다. 즉 몽골에서 측대보로 걷는 조로말이란 어원이 ‘조랑말’로 변한 것이다. ‘안동아랭’이란 안동소주를 일컫는데 몽골말의 ‘안동아르히’에서 안동아랭이로 바뀌진 것과 같은 것이다.

몽골족들의 주요한 식생활원인 마유주(馬乳酒)만 하더라도 근래까지 제주도에 그 만드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다. 몽골족들은 수 천년 전부터 말 젖이나 가축의 젖을 마셨으며 그 가공기술도

가졌기에 서구의 우유문화보다도 훨씬 앞선 낙농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컸을 것이다.

오늘날 몽골의 유목민들은 오직 뽕족한 칼이나 메스 한 자루가 유일한 치료기구이다.

그것이 모든 진료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의서(馬醫書)에 봄에 말의 피를 빼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오늘도 봄에 그 메스나 칼로 말의 어깨부위를 난자하여 피를 빼고 있다.

메스 하나로 그들은 망아지들의 고통을 떼어내는 일을 거침없이 해낸다. 제주도에서도 과거 망아지의 고통을 떼어 내는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했다.

이 모두가 아마 원나라의 지배동안에 우리가 받아들인 수의술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들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고려의 전국토를 약 100여 년간 지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각종 풍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은 자명한 일이나 기마 민족이기에 마의학에 끼친 영향은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가 우리 나라에서 말의 교류가 가장 빈번한 시기였으나 수의에 관해서는 뚜렷한 기록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단지 1399년 정종 원년에 펴낸 신편집성마의방의 서문에 “경은 백락의 경으로서 하고 위(緯)는 원(元)나라의 결(訣;秘方)로서 하여”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원나라에서 사용되던 비방을 수록하였다는 것이다.

수의(獸醫)와 마의(馬醫)라는 관직명(官職名)

조선시대는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걸쳐 발전된 수의학의 완성기라 할 것이다. 수의학 서적이 본격적으로 발간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특출한 기마가(騎馬家)이면서 마사인(馬事人)이었다는 사실은 용비어천가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고려의 구습에서 벗어난 조선조 초기는 각종 제도와 문물이 정립되면서 수의학도 황금기를 맞이 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마정(馬政)과 축정(畜政)에 관해서는 병조(兵曹)의 사복시에서 관장하였으며 수의가 사복시에 전속되어 말의 질병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명칭을 마의(馬醫)라고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사복시에 마의 10인이 있고, 종6품에서 종9품까지 였다. 그후 태종 때는 다시 보완되어 이마와 수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종6품은 안기(安驥), 종7품은 조기(調驥), 종8품은 이기(理驥), 종9품은 보기(保驥)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수의 직종은 벼슬이 높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뚜렷한 직명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오늘과 마찬가지로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조선조 태종(太宗) 원년(1401년)에 명나라 사신이 말을 요구하러 입국하였을 때 중국의 수의 2명을 대동하였고, 명나라에 보낼 말을 선정하는 과정에

수의가 말을 선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명나라에서는 역환마(易換馬)를 구하러 오면서 많은 비단들과 약재를 싣고 왔다. 이에 태종이 사신과 감생(監生), 수의 2명을 태평관(太平館)에서 환영연을 베풀었는데 감생 4명은 사신 바로 밑에 앉게 하고 수의 2인은 서편에 북향하여 세워 두었다. 이윽고 왕이 잔을 들어 수의인 왕명(王明)을 부르니 왕명이 하는 말이 “저들 4명과 우리들은 피차 일반인데 왜 우리들은 앉지 못하게 합니까.”하고 나가 버렸다. 왕이 불러 앉히고자 맹헌(孟獻)에게 물었으나 맹헌이 이들은 “천한 사람들이니 앉지 못하게 하소서”하였다. 수일 후에 다시 왕이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는데 수의 2명인 왕명과 주계(周繼) 2명은 병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통사(通事; 통역관)가 그 연유를 물으니 왕명이 “우리들과 감생들은 매일반인데 어찌 감생들은 앉게 하고 우리들은 앉지 못하게 하며 또 음식도 차별을 두는가?”라고 하고 분개하였다. 통사가 전일의 맹헌이 한 말을 하니 “우리들은 국왕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신을 원망한다”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기술직 이라고 해서 하대를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이 기록은 비록 명나라의 수의 사이긴 하지만 정식 이름이 기록된 것이기도 하다.

태종 7년(1407년) 세자가 명에 하정사(賀正使)로서 명의 태자에게 선물하려는 말 50필을 이끌고 갈 때 총책임자로서 상호군

(上護軍)이 임명되고 양마(養馬) 2인과 마의 3인, 견마배(牽馬陪) 7인으로 하여금 압송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그해의 의정부에서 마정에 관한 장계에는 “각도에서 나누어서 기르고 있는 국마가 병에 걸렸을 경우 항상 중태에 빠진 연후에 이마(理馬)에게 보고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수의가 치료하는데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일수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사복시에는 이마(理馬; 정6품의 馬政官 주로 遞兒職)와 양마라는 관직이 있고 그 밑에 마의(馬醫)라는 명칭을 가진 수의가 말의 감정과 치료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의는 수의라는 명칭이외에 정식 관명인 안기 조기 이기 보기 등으로 불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의는 마필이나 가축의 생산을 위해서 국가가 상당히 신경을 쓴 대목을 세종실록에서 읽을 수 있다. 제주도에 마의를 파견하여 우마(牛馬)의 병을 다스리고 목자들에게 수의기술을 가르치면서 수의사를 양성하도록 하였다. 마의의 근무기간은 1년이었으나 제주도는 먼바다에 떨어져 있어 부임하는데 3-4개월이 소요되어 실제 근무하는 기간은 7-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세종 13년(1431년)에 이조(吏曹)의 건의에 의하여 제주도의 경우에 한하여 마의의 임기를 수령이나 교수의 임기와 같이 30개월로 하였다. 이로서 제주도에 온 마의는 직접 말을 치료함과 동시에 수의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뽑아서 마의방(馬醫方) 이약(理藥), 침자(針刺)

등을 전습시키므로 그 양성에도 힘썼다. 그리하여 말 치료술은 목자에게도 보급되었으나 말 병을 억측으로 치료하거나 미리 난치병이라고 하여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당시의 약제로서는 대개 요즘 한방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현지에서 조달해서 사용하였다. 즉 질려(藜) 청굴(靑橘) 등과 같은 것이다.

말의 생산을 위한 시책

조선조 초기에 제주목장에 대한 국가의 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목장은 조선의 군사 통신등에 필요한 마필의 절반이상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주도 목장의 효율적 관리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제주목장은 육지의 어느 목장과는 다르게 마감(馬監) 반직감(班直監)을 두고 그 밑에 군두(群頭) 군부(群副) 목자(牧子)등을 배치했는데 이들에 대한 엄격한 직무규정을 강화 시행함으로써 마필 생산에 철저를 기하였다. 태종 6년의 자료를 보면 암말 10필로서 새끼 7-8필을 낳으면 상등, 5-6필이면 중등, 3-4필이면 하등으로 채점하여 상벌을 정하였고, 세종 7년에는 암말 100필로서 1군을 삼아 50필마다 군두 1명을 두고, 다시 매 50필마다 군부 1명, 매 25필마다 목자 1명을 정하여 1군마다 1년에 80필 이상을 생산하면 상등, 60필 이상이면 중등, 60필 이하면 하등으로 평정하여 30개월을 단위로 출척을 정하여

상등이 세번이면 승진시키고, 상등이 한번이면 유임케 하고, 중등이 세 번이며 좌천시키고 하등은 즉시 논죄하여 파면시켰다. 특히 하등인 군두 군부 목자는 모두 논죄하되 손실된 말, 즉 죽은 것이나 잃어버린 것은 모두 법률에 따라 배상케 하였다. 성종 4년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개정하면서 암말 100필 숫말 15필을 1군으로 삼고 군두 1명 군부 2명 목자 4명을 배치하였는데 매년 85필 이상을 번식시키면 군두의 경우 품계를 승급하되 특히 실적이 좋은 자는 경관직(京官職)을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두 군부 목자가 말을 잃어버리면 태 50에 처하고 잃어버린 마소가 매 1필씩 증가할 때마다 형을 1등급 추가하도록 하였다. 다만 죄가 장 100에 이르면 그치지만 잃어버린 수대로 추징토록 하였는데 사고로 말이 죽었을 때는 3필에 대하여 1필을 주고 1필을 추징하며, 죽은 소가 2두이면 1두를 추징하였다. 이 규정은 그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더욱 강화되어 목장관리자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직무규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말의 우량종을 확보하여 종자를 개량하는데 힘을 썼다. 주로 중국이나 여진으로부터 달단마(撻但馬) 호마(胡馬)등을 수입하여 양마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적(馬籍)이나 우적(牛籍)을 만들어 우마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목장마는 낙인(烙印)을 찍어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곧 말을 생산한 목자나 민간생산자가 말의 나이와 모색을 관청에 신고하면 관청에서는 이를

조사 확인하여 5통의 우적이나 마적부를 만드는데 그 가운데 1통은 목자감(牧子監)이 보관하고, 나머지는 목사(牧使)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 사복시(司僕寺) 병조(兵曹)에 보냈다. 특히 목장 말은 소속군을 구별하기 위하여 천자문의 글자를 깊이 낙인하여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였는데 후시 농간을 부리는 경우에는 감목관(監牧官)을 파면하고 군두와 목자는 장 100, 도 3년 형에 처하였다. 목장과 민간 마필 생산자는 말의 숫자가 증감이 있을 때는 즉시 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목관은 매월 말에 우마 수를 점검하여 목사 전라관찰사 사복시 병조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시책이었으니 말의 질병을 담당하는 수의사로서는 그 역할이 컸을 것이다. 또한 마적부를 만들 때 모색이나 낙인등에도 수의사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제주도에 파견된 수의사는 직접 말의 질병치료에도 종사하였지만 목자들에게 치료술을 가르쳤으니 목장의 군두 군부 혹은 목자들은 당시로서는 수의보조원의 노릇을 했을 것이고 수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면허증 없는 무면허 수의사의 노릇을 했을 것이다.

수의와 마의의 중요성

마의가 될 수 있는 길은 병조에서 실시하는데 무과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마의의 경우 병조의 사복시 제조(提調)가 주관하여 과거 시험을 보았다. 시험방법은 안기집

(安驥集;마의서의 하나)을 강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세한 절차나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안기집은 현재 어떤 책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당시 사복시에서 사용되던 수의학 서적임에는 틀림없다. 아마 신편집성마의방보다도 오래된 책일 것이다. 역사서에는 성종 25년(1494년) 4월 2일에 이창신(李昌臣)등이 번역한 안기집을 반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조 초기에 수의서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해로 번역해서 출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의학 서적은 조선조 개국공신인 조준(趙浚)등이 편집한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인데 이는 정종 원년(1399)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부터 무려 600년 전의 일이다. 그 서문을 보면 당시의 말이란 존재를 알 수 있으면서 수의술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기에 여기에 소개한다. “천지간에 있어서 말의 존재야말로 그 쓰임이 크다. 주례(周禮)에는 수인(獸人)으로서 관장하지 않고 하관(夏官)의 대사마(大司馬)가 거느리니 그 쓰임을 중하게 여김이라. 대개 나라의 대사는 용정(戎政)이요, 용(戎)은 말이 아니고서는 적(敵)을 제압하고 변을 꺾고 무위(武威)를 떨쳐 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가 없다. 어찌 한갓 무거운 짐을 실어 먼 곳에 이르고 역마(驛馬)로 명령을 전함을 말할 따름이요, 그러므로 천하에 제일감을 만승(萬乘)이라 하고,

둘째감을 천승(千乘)이라 이르니 승(乘)이란 승마(乘馬)이다. 천하 국가의 대소와 강약을 모두 이로서 차례 짓나니 그 중요함이 어떠한지 하겠는고, 참복(服)이 폐하여 진지라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곧 바로 편리한 안마(鞍馬)에 귀의하게 되었으니 그 천하 유공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대개 잘 뛰는 좋은 말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바요 나라에 있어 용무(戎武)의 준비는 해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사람이 이를 구하고자 함이 기갈(飢渴)이란 말로서는 족히 비유할 수 없다. 아! 아! 말은 역시 살아 있는 동물인지라 혹 부리고 시킴에 있어서 그 몸에 맞지 않거나 혹 수초가 맞지 아니하여 한번 병이 생기면 드디어 무지한 천예(賤隸)의 손에 맡기어 지니 병이 낫는 것은 요행(僥倖)이요 기교(技巧)가 아니다. 문득 일컬어 수의(獸醫)라고 하나 저가 경맥(經脈)과 손락(孫絡)을 모르니 어찌 감히 유혈(俞穴)에 밝고 약성(藥性)에 자세하여 그 병을 바로 맞추기를 바랄 수가 있으리오, 침(針)을 속이고 약을 함부로 써서 자칫 진귀한 짐승을 잃게 되니, 목숨만 해칠 뿐 만 아니라 재물을 손해보게 하는 도다. 고인이 그 부지함을 나무라서 말이 있으니 만약 용의(庸醫)가 양마를 다스린다면 진실로 부지(不智)하고 부인(不仁)함이 아니냐고 하였다. 좌정승(左政丞) 평양백(平壤伯) 조준공(趙浚公), 우정승(右政丞) 상락백(上落伯) 김사형공(金士衡公)은 상감의

지인(至仁)하심을 본받아 의국수민(醫國壽民)에 당한 나머지 이 마음을 널리 펴서 만물에 미치고자 하니 이에 예천백(醴泉伯) 권중화공(權仲和公), 서원군(西原君) 한상교공(韓尙教公)등과 함께 마방(馬方)을 찬집(撰集)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경(經)은 백락(伯樂)의 경으로 하고 위(緯)는 원(元)나라의 결(訣)로서 하여 여러 책에서 효험있는 기술을 모으고, 동인(東人)이 이미 시험해 본 기술을 채택하여 이 책을 이루었으며, 누재(縷)하여 두루 펴서 삼한(三韓)과 더불어 즐기고 이목(耳目)을 광개(廣開)하고자 한다. 바라 건데 병에 따라 방문을 얻고 손을 써서 말 못하는 유성(有性)의 종류로 하여금 찰차(札)를 면하여 그 생명을 보전하고 돈을 들여 사양하는 사람은 그 이익을 잃지 않아 그 쓰임을 기약하게 함이라. 한때의 시작이나 이는 백세(百世)에 미칠 것이니 어찌 대동가국(大東家國)에 만만(萬萬) 유리하지 않겠는가. 자맹(子孟)씨가 이르기를 민(民)을 사랑하고 물(物)을 사랑하라 하였는바 아공(我公)에 있어서 다행이 직접 이를 보는 도다. 건문원년(建文元年) 창룡(蒼龍) 기묘(己卯) 중려(仲呂; 음력 4월) 기망(既望; 음력 16일) 봉열대부(奉列大夫) 전의소감(典醫少監) 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 남양방사량(南陽房士良)은 서문(序文)을 쓰노라.

李始永(경마평론가,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

Email; shiylee@chollian.net

